



정교회주보

제2545호
2025년 10월 5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2주일
성 하리티니 순교자
(제8조 • 조과 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8조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6,16~7,1 (봉)265
- 복음경 : 루가 6,31~36 12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가 6,36)

사진 설명

기도 매듭

기도 매듭(콤보스끼니)은 정교회의 중요한 기도 도구로, 오랜 역사와 깊은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만드는 방법 또한 고유한 전통을 갖고 있다.

초기부터 수도자들이 반복적인 기도를 세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기도 생활에서 특히 '예수 기도'를 반복할 때 주로 쓰이며, 때때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성인들을 위한 기도에서도 이용된다.

전통적으로 33, 50, 100, 300 매듭 등 다양하게 만드는 데, 이 중에 33 매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을 상징한다. 수도원의 오랜 관습에 따라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며, 재료는 양모 원사를 사용한다.

기도 매듭은 깊은 영적 상징을 담고 있다. 각 매듭은 한번의 기도를 뜻하며 영적 투쟁과 인내를, 원형의 끈은 하늘님과 끝없는 교제와 영원함을, 검은색 실(가장 전통적인 색)은 회개와 겸손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억과 기도의 완성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



예 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
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오
16,24)

이 말씀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
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
와 달리, 강요하지 않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은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는 자기 뜻과 세속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뜻은 늘 우리의 뜻보다 앞
서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게
세마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야
고보, 요한 또한 가족과 재물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
자가는 주님께서 악의 권세를 꺾고 이루신 구
원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승리와 자비, 사랑의
십자가이며,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
고서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매 순
간 자신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능
력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곧 회개의 길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
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
는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많은 성인
들이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며 삶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내
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또
한 자아를 무덤에 묻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신앙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언제나 불평을 할 것이고, 무엇인가가 늘 그를 거슬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 '잘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우리는 평생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합니다. 자신의 '에고'(자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의'를 기대한다면,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올바른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不義)나 사랑에 의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할 것인지 부당한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할 것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 엘레프테리아디스 엘레프테리오스(정신과 의사)



실수를 합니까?

죽은 자와 돌만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은 어떤 제빵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완벽함에 싫증이 나서 어느 정도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창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럼으로써 하느님 당신의 초월적인 완벽함에서 벗어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회개와 겸손, 성숙, (남의 결점과) 모든 창조물에 대한 관용을 가져올 때, 실수는 꽃으로 변모합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은 노래를 우아하게 꾸미는 독창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스케르초'(서양 고전음악에서 해학, 농담을 뜻하는 용어로서, 주로 빠르고 익살스러운 성격의 악곡이나 악장을 뜻함)와 같습니다. 그것은 초원에 펼쳐진 녹색 화초의 따분함을 깨뜨리는 붉은 양귀비꽃 같은 것입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작은 실수도 두려워하는 결점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그들은 끔찍하게 큰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그들의 모든 삶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로 위의 아스팔트를 닦아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활기가 없이 죽은 것 같고, 집요하고 끈질긴 완벽주의의 (콜)타르(도로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의 주재료)로 덮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벽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회개와 겸손, 창조주를 향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다는 교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가는 것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 디오니시오스 타바키스 신부

■ 추석 추도식 안내

내일 10월 6일(월)은 우리 조상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교회에서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서울 성당에서는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함께 거행됩니다.)

신자들께서는 풀리바를 준비하셔서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귀국

그리스와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 방문 일정을 마치고 9월 25일(목)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께서는 한국의 신자들에게 따뜻한 축복과 기원을 전했습니다. 그리스의 여러 대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 신자들 역시 한국 정교회를 위해 기도를 잊지 않고 있음을 전하며,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 수요일 줌 모임 재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온라인 영성 강론이 재개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오는 10월 19일(주일), 성찬예배 후 음식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는 우리 주변에 정교회를 알리는 선교적 차원의 행사입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준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정교회 선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영성의 산터

인도하시는 주님



하루는 암모나스 사부가 안토니오스 대수도자를 만나러 길을 나섰다. 그는 초행길이던 산을 오르던 중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오랜 시간을 헤매면서 위대한 은수자의 동굴을 찾았지만 허사였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을 알고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당신의 피조물이 이 험한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보호하소서.”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 그에게 길을 가리켰고 그는 무사히 대 안토니오스의 동굴을 찾아갔다.